



목민심서



내 학문 사르는 불길,
나 하나 소멸함은 하잘것 없지만 부리짚은 공자가 관직에 오르며
어마원고 부리짚은 세에 죽우리나 다름없지 않으나
내가 부재한 백성들은 누구의 그늘 아래 숨을 조를꼬.

금과 비단으로 꾸매진 옷자락만 휘날리며
행실 그릇된 자가 천세를 켜다면 그늘 아래 앉은 자도
무엇으로 마음을 닦고 무언 불발하겠는가. 예로부터
목민이란, 겸손함을 지킴으로 천명을 순응 삼아야 하거늘
내가 없는 백성들은 누구의 품에 기대꼬.

피 눈물에 마라불은 죽판, 허기로 시린 어린것들,
허나 그늘 안은 숙내에 잠기고 무리 함은 죽우리와
기생의 웃음소리만 메아리친다. 내 비어버린 백성들은
누구의 품을 향해 목놓아 부를꼬.



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

고전 도서명

목민심서 <정약용>

작품 소개

정약용이 1919년에 억울하게 유배를 간 상황에서의 정약용 시점에서 시를 썼다.

정약용은 목민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자신이 유배를 가서 만약 탐관오리들이 목민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리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하는 심정이 담겼다.

시에서 탐관오리를 부리없는 독수리로 표현했고, 부리없는 새끼 독수리들을 백성으로 표현했다.